

청소년의 달 특별기획

부산시립무용단 제25회 정기공연

짜라투스트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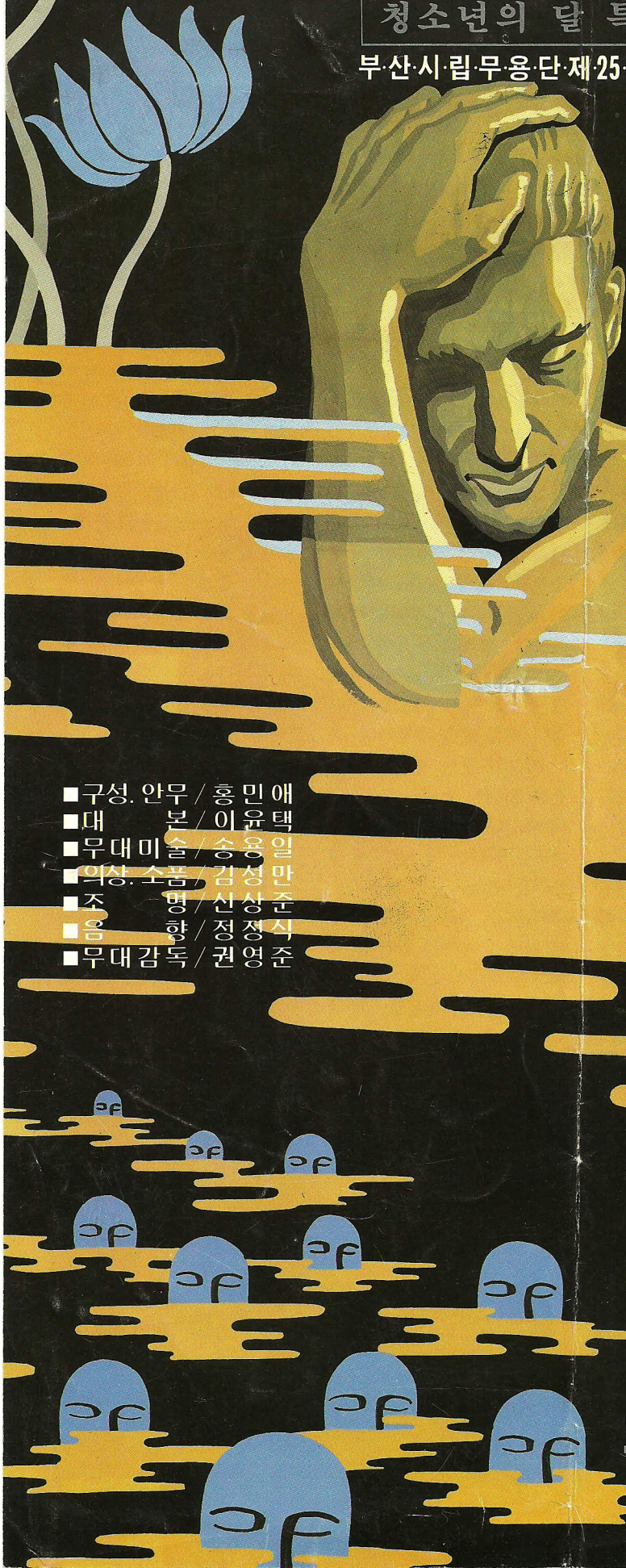
이렇게 말했다

9.5.28 > 29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 구성. 안무본 / 홍이 / 민애
- 대 무대미술품 / 송웅 / 윤일
- 의상. 소품명 / 김성 / 만준
- 조음명 / 신상 / 정영
- 무대감독 / 정권 / 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ALSO SPRACH ZARATUSTRA

이 무용구성은 언어의 의 미론적이고 진술적인 기능을 언어 자체의 공감각적 존재로 환치시킨 니체의 아포리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공감각적 표현 예술의 총아라 할 수 있는 무용으로 재구성해 본 것이다.

이번 무용은 니체의 원작과 동아시아적 인식의 원천인 불교적 세계관, 그리고 주역, 화랑의서 등으로 드러나는 동양적 삶의 정신을 종합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니체는 사실상 불교도였고, 그의 정신 세계는 동양적 자연관과 범신론에 닿는다는 점에서 동서양의 미학이 만날 수 있는 정신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무용 형식으로 무대에 올려지게 됨으로서 명실공히 우리의 정서와 느낌에 맞는 무용으로 ‘한국적 수용’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1막 : 하산행

산중 은자의 목상을 계속 하던 짜라는 어느날 문득 동굴 속에서 해골 바가지의 물을 떠 먹고 삶의 지혜를 깨닫는다. 도는 산중이나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 속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산을 결심한다. 같은 도반들은 세상의 혼돈을 염려하며 하산을 저지시키려 하고, 자연의 천진스런 초목과 짐승들은 짜라의 길 떠남을 아쉬워 한다. 그러나 누구도 짜라의 하산을 막지 못한다.

**2막1장 : 책을 덮고
 거리로 내려오라**

시장바닥에 당도한 짜라는 삶의 이치를 설파한다. 그러나 누구도 듣지 않는다. 시장은 금화와 물건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광대가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다. 짜라는 책의 무력함을 개탄하며 서재를 무너뜨리고 광대와 재주 시합을 벌인다. 여기서 짜라는 새로운 큰 광대로 인기를 끌고, 최초의 제자 광대 짜라를 수하에 둔다. 그리고 사랑

에 빠진다. 짜라의 첫 연인은 여인 짜라가 되어 짜라의 제 2분신이 된다. 짜라는 흥미진진한 갈등과 애증이 얽힌 일상 속의 탈렌트가 되는 것이다.

**2막2장 : 질풍노도의
 시대**

자유분방한 시장 바닥에 어느날 성이 축조되고 국기가 나부끼기 시작한다. 지도자가 등장하고 군대가 등장한다. 정치가가 형성되고 당이 결성된다. 무대는 규격적인 군대 조직사회로 둔갑된다. 짜라는 이 집단주의를 거부하면서 투옥된다. 짜라의 투옥이 시장바닥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혁명가 짜라가 등장한다. 그는 청년 짜라 당을 결성하여 폭군 짜라와 맞서 싸운다. 시장은 완전히 혁명의 도가니에 빠진다. 폭군 짜라를 무너뜨린 짜라는 또 다른 군대 조직을 만들고, 지도원리를 내세운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혁명가 짜라는 감옥 속의 짜라를 석방하고 국가의 추앙받는 상징적 인물로 등극

시키려 한다. 짜라는 거부한다. 혁명가 짜라는 짜라를 황야로 추방한다.

**3막 : 나는 차라리
 황야이고 싶다.**

추방된 짜라는 들판에서 가장 친한 위치에 놓여 있는 민초들과 만난다. 그들과 어울리고 전과하면서 새로운 재야의 예언자가 된다. 이때부터 혁명가 짜라-폭군 짜라 2세는 탄압을 시작한다. 그러나 민초들의 불길은 멈추지 않는다. 드디어 베드로 짜라는 종교를 결성하고 제자들을 모은다. 짜라를 신으로 받들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짜라는 말한다. “신은 죽었다” 짜라는 이어 말한다. “너희는 날 십자가에 못박는 일 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짜라는 폭군 2세 짜라와 베드로 짜라의 회유와 천거를 동시에 거부한다. 양쪽에서 돌이 날아온다. 모두 떠나고, 짜라 혼자 황야에 남는다. 눈 멀고 외로움에 미친 짜라-저 혼자 남아 ‘황야의 춤’을 춘다.

